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배경
2.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3. 중국 내 평가 및 반응

주요 내용

- 2023년 11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대립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미·중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 경제·통상 이슈, 대만 문제, 양국 협력, 글로벌·지역 이슈 등이 논의됨.
 - 미·중 정상은 군사 소통, 마약 제조·유통 방지, AI 이슈, 기후변화, 인문 교류, 초국가적 과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 및 확대에 합의함.
 - 미·중 정상은 과학기술, 수출규제,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 상호 간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글로벌이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포함.
- 중국 정부, 주요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다양한 평가 및 반응을 보임.
 -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 관계 재정립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주요 언론사들은 향후 미·중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미·중 관계는 양국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합의한 협력 이슈와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미·중 양국은 확실한 목표 설정, 신중한 접근, 다양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1. 배경

■ 2023년 11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함.

- 미·중 양국은 백악관 및 중국 외교부 등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공식 발표함.
- 백악관은 10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 이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 일정을 확인함.¹⁾
-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 미·중 양국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미·중 정상이 발리에서 달성한 공감대를 제대로 구현하고 간섭을 배제하며 장애를 극복해 성과를 쌓아야 한다고 밝힘.²⁾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대립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와 미·중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차이치(蔡奇) 중앙 판공청 주임 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관료들도 동반 참석함.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발리 미·중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에 성사되었으며, 발리 미·중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었음.³⁾

- 코로나 팬데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대면 회담이며 양국 정상의 중요 정치 일정이 끝난 후 처음으로 소통한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님.
- 발리 정상회담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미·중 양국 정상들은 양국 관계를 비롯한 중요 사안에 대한 소통 및 협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중국은 미·중 관계가 발리 미·중 정상회담의 수준으로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측에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감대를 요청했음 (표 1 참고).⁴⁾

1)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White House』(2023.10.27)

2) 「汪文斌：“通往旧金山”不能靠“自动驾驶”」, 『外交部发言人办公室』(2023.11.09)

3) 「深度 | 中美元首巴厘岛会晤，释放哪些关键信息？」, 『上观新闻』(2022.11.14)

4)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在巴厘岛举行会晤」, 『新华社』(2022.11.14)

표 1. 2022년 발리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5불(不)과 4무의(无意)	주요 내용
5불(不)	중국 체제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음.
4무의(无意)	중국과 갈등이나 대결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음.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할 의도가 없음.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
	중국을 봉쇄할 의도가 없음.

자료: 신화통신사(新华社)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 고위급 관료들은 사전에 회동하여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급 관료 중 처음으로 방중 함.
-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켈리 기후변화 특사,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국 고위급 관료와 인사들이 방중해 미·중 협력 이슈와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함.
- 지난 9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회동하였음.
- 지난 10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7년 만에 방미했고, 11월 초에는 허리핑 부총리가 방미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및 경제무역 관계 회복 등을 논의함.

2.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는 공동 기자회견 및 선언문이 없기에 미국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담 내용을 발표하였고,⁵⁾ 중국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담 내용을 정리함.⁶⁾
-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경제·통상 이슈 △대만 문제 △협력 이슈 △글로벌·지

역 이슈 등에 관한 양국 입장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미·중 관계의 '5개 기둥 구축(공동비전)'을 밝힘.

- 미국은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미·중 양국이 상호존중·평화공존·상생협력을 추구해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

■ 미·중 관계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

-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힘의 원천에 대한 투자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지속할 것이며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나설 것임을 밝힘.
-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식민 약탈의 길과 패권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이데올로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넘어서거나 대체하려는 계획이 없기에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힘.
 - 아울러 미·중 양국은 △정확한 공감대 형성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 관리 △상호호혜적인 협력 추진 △책임 공동 부담 △인문 교류 공동 촉진의 '5개 공동비전'을 같이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경제·통상 이슈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 △비시장적 경제 관행 △미국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
-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심사 △일방적 제재 등으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지속해서 훼손하였다고 지적했고,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누르는 것은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국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중국의 발전과 성장은 내생적인 논리를 갖고 있어 외부 세력이 막을 수 없기에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인 제재의 해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대만 문제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 변화에 반대하며, 양안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중국이 군사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가 줄곧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에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밝힘.
 - 또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5)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2023.11.15)

6)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举行中美元首会晤」, 『中国政府网』(2023.11.16)

중단해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할 것을 강조함.

■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 합의

- 미·중 양국은 △고위급 군사 대화 △방위 정책 조정 실무회담 △해상 군사 안보 협의체 회의 재개에 합의함.
- 미·중 양국은 펜타닐 등 마약을 포함한 글로벌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방지와 관련한 협력을 재개하고 마약 퇴치 협력 실무그룹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미·중 양국은 AI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AI 안전성을 위한 정부 간 대화 창구 설립을 합의함.
- 미·중 양국은 양측 기후변화 특사 간의 성과를 환영함.
 - 미·중 기후변화 특사들은 사전에 COP28 공동 추진과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함.
- 미·중 양국은 2024년 초부터 양국 간 항공편을 대폭 증편하고 교육·유학생·청년·문화·스포츠·비즈니스 교류 등을 확대한는데 합의함.

■ 글로벌이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항행 및 비행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지속하고,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해 이스라엘의 대테러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 존중의 책임을 강조

표 2.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구분	미국	중국
미·중 관계	- 자국 힘의 원천에 대한 투자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 지속 -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나설 것	- 식민 약탈의 길과 패권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이데올로기 수출은 하지 않을 것 - 미국은 중국을 억압하지 말 것 - △공감대 형성 △갈등 관리 △상호호혜 협력 추진 △책임 공동 부담 △인문 교류 촉진의 '5개 공동비전' 필요
경제·통상	- △불공정 무역정책 △비시장적 경제 관행	-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심사 △일방적 제

	△미국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 제기 - 미국의 과학 기술이 자국 안보 저해 시 필요한 조치 계속할 것	재 등으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 -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누르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억제하고 발전권을 뺏는 것 - 일방적 제재 해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환경 제공을 희망
대만 문제	-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 -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 변화 반대 - 양안이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희망 - 중국의 군사 활동 자제 촉구	-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 미국이 발리화담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 -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
군사 소통	- △고위급 군사 대화 △방위 정책 조정협의 실무회담 △해상 군사 안보 협의회 회의 재개	
마약 퇴치	- 펜타닐 등 마약을 포함한 글로벌 불법 마약 제조 및 유통 방지 관련 협력 재개 - 마약 퇴치 협력 실무그룹 마련	
AI	- AI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AI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간 대화 창구 설립	
기후변화	- 양측 기후변화 특사 간의 성과 환영 - 양국 기후변화 특사들은 사전에 COP28 공동 추진과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실무그룹’ 가동에 합의	
인문 교류	- 2024년 초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 -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 교류 확대	
인도 태평양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지 -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 의지 재확인 - △항행 및 비행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 안정 유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강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 지속 -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 이스라엘의 대테러 방어권 지지 -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의 영향력 필요	-
인권	- 중국의 인권 침해 우려 제기 -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 존중 책임 강조	-

자료: 백악관 및 중국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3. 중국 내 평가 및 반응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평가

-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 직후 현재와 미래의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 브리핑을 진행함.)

-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의 신뢰를 높이고 차이점을 관리하며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회의이며, 격동적이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확실성을 주입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회의였다고 평가
-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샌프란시스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미·중 양국은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찾아야 하고 또한 찾을 수 있음을 강조.
- 2024년은 미·중 수교 45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양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출발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미·중 관계의 기초를 더욱 다져야 하며 평화 공존의 기둥을 구축해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함.
- 마오닝(毛宁)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전략적 의의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긍정적이고 전면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으로 오늘날 국제관계의 중대한 사건이자 미·중 관계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⁸⁾
- 중요 공감대와 성과는 미·중 양국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더욱 잘 보여주며, 호혜와 상생이 미·중 관계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대화와 협력만이 미·중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임을 확인시켜 줌.
- 셰펑(谢锋) 주미 중국대사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을 이끈 유익하고 큰 의의가 있는 회담이었으며, 올해 미·중 관계 하이라이트이자 중국 역사의 이정표라고 평가 함.⁹⁾
- 미·중 관계의 발전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
- 긍정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해 '샌프란시스코 비전(5개 공동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미·중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함.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주요 언론의 반응

- 신화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관계가 쇠퇴를 멈추고 안정화되는 중요한 순간에 성사되었으며, 미·중 양국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다고 평가¹⁰⁾
- '국민'은 언제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관계에 대한 사고와 계획의 중심임을 강조
- 인민일보의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가 양국 국민에 있으며, 미·중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미·중 양국 국민의 쌍방향 소통이라고 평가¹¹⁾

7) 「王毅谈中美元首旧金山会晤对中美关系的影响」, 『外交部』(2023.11.16)

8) 「2023年11月16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外交部』(2023.11.16)

9) 「谢锋大使向美国各界推介中美元首旧金山会晤重大意义和重要成果」, 『中华人民共和国驻洛杉矶总领事馆』(2023.11.22)

10) 「担负起沉甸甸的责任——中美元首旧金山会晤侧记」, 『新华网』(2023.11.17)

- 중국은 인류의 미래와 운명은 세계 각국의 국민이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 왔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국민들의 입장과 바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미·중 관계를 옹호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에 유대와 소통 강화는 미·중 관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 환구시보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 역사에 독특하고 심오한 흔적을 남기는 매우 의미가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정상회담이라고 평가¹²⁾
-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앞으로의 여정이 순조로울지는 미국이 합의를 진정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이는 미·중 관계의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자 미국의 정치적 신뢰도를 크게 시험하는 것이라고 언급
- 매일경제신문은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이 올바른 관계의 길을 세울 수 있는가의 여부는 양국 국민의 안녕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발전과 인류의 미래에도 관련된다고 평가¹³⁾
- 미·중 양국은 △평화 공존의 역사적 논리 견지 △양국 국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염원 존중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기대 부응 △미·중 우호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미·중 관계의 축진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 반응

- 미국 덴버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미·중협력센터 주임 자오쑤이성(赵穗生)은 이번 회담의 성과가 양국이 공통된 이익을 중시한다는 데서 나타나는데, 양국은 모두 역사적 고비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호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힘.¹⁴⁾
- 자오쑤이성 교수는 양국이 군사 고위급 소통과 메커니즘 대화를 복원하고 △인문 교류 △사법 집행 △글로벌 거버넌스 등 분야 협력에서 이론 진전을 높이 평가
- 자오쑤이성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5개 공동비전'에 대해 미·중 양국의 공통된 이익과 공통 비전을 강조하며 미·중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 평화발전연구소 소장 랴오정룽(廖峥嵘)은 올해 중반 이후 점차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왕래가 정점에 이르렀으며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가 활기를 되찾는 것과 관계 발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실패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¹⁵⁾

11) 「人民网评：中美关系的故事是由人民书写的」, 『人民网』(2023.11.21)

12) 「社评：世界期待“旧金山愿景”照进现实」, 『环球时报』(2023.11.17)

13) 「热评丨赓续中美友谊，推进中美关系 努力为促进世界和平和发展作出更大贡献」, 『每日经济新闻』(2023.11.17)

14) 「国际观察：“中美关系的大门一旦打开，就不会再被关上”」, 『人民网』(2023.11.22)

-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재정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책 실수를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지가 향후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겸 미국 연구센터 소장 우신보(吴心伯)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이 바이든 정부의 미·중 양국 간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였다고 언급하고, 향후 미·중 관계의 목표 관리와 과정 관리를 추진하고 미·중 양국 간의 게임 경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¹⁶⁾
- 양국은 차이점을 잘 관리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양국 관계의 의제에 '협력'이 복귀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긍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미·중 양국은 자국의 안녕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데에도 책임이 필요함.
- 미·중 양국 간의 게임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될 것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임. 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어려워지는 미·중 양국 간의 관리에 유용한 구조를 제공하고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선을 지키는 감각을 부여하며 전반적인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임.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쑤샤오후이(苏晓晖)는 향후 미·중 관계의 안정에 대해 미·중 양국은 인문 교류 등 상응 조치를 포함한 원칙적인 설계와 특정 경로에 대한 일련의 계획이 있기에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분명히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중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평가¹⁷⁾
- 중국외교학원 부원장 가오페이(高飞)는 미국의 각계각층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교류에 전례 없는 열의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두가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와 안정적인 문화교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¹⁸⁾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연구소 부소장 저우미(周密)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전통적인 농산물 심층 가공과 혁신적인 응용 외에도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광범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평가¹⁹⁾
- △제품 제조 △기술 혁신 △표준 설정 등 제조·금융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협력 여건이 있으며 협력이 강화되면 관련된 △프로세스 △표준 △규칙 제정 등으로 확대될 예정
- 기후변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연구원 마잉잉(马盈盈)은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평가²⁰⁾

15) 「廖峥嵘：期待经贸为中美关系改善创造基础」, 『环球时报』(2023.11.28)

16) 「吴心伯：界定中美博弈的边界，很难却很重要」, 『环球时报』(2023.11.21)

17) 「焦点访谈 | 把舵中美关系 领航亚太合作」, 『央广网』(2023.11.20)

18) 「焦点访谈 | 把舵中美关系 领航亚太合作」, 『央广网』(2023.11.20)

19) 「热点 | 中美经贸向好发展迎来新契机」, 『中国经济时报』(2023.11.20)

20) 「热点 | 中美经贸向好发展迎来新契机」, 『中国经济时报』(2023.11.20)

- 미·중 양국의 경제구조는 매우 상호보완적이며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산업 시스템에 기반한 공급 우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큰 의의가 있으며 △농업 △금융 △AI △과학기술 △친환경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여지가 넓기에 양국은 거시 정책 조율에서 소통을 유지하고 관심사를 이해해야 함.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쑤리펑(孙立鹏)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다시 ‘봄날(小阳春)’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해야 한다고 평가²¹⁾
-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변화 추세는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환경에 달려 있음.
- 향후 미·중 양국 간에 더 많은 경제무역 협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일반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임.
-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은 거시정책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장쑤성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겸 장쑤성 세계경제학회 회장 장위안펑(张远鹏)은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 △디커플링 및 상계 조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첨단기술 무역 제한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힘.²²⁾
- 향후 중국과 미국은 특히 소비재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축 △녹색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음.
- △마약 퇴치 △금융 감독 △네트워크 경제 정보 보안 △국제 조세 △경제 범죄 및 부패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더 커지고 고위급 법률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협력의 기회가 있음. **KIEP**

표 3. 미·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내 평가 및 반응

구분	평가 및 반응 핵심 내용	
당국	왕이 외교부장	-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 전략적 의의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긍정적이고 전면적이며 건설적인 정상 회담으로, 오늘날 국제관계의 중대한 사건이자 미·중 관계 역사의 이정표
	세펑 주미 중국대사	- 전 세계의 관심을 이끈 유익하고 큰 의의가 있는 정상회담이며 올해 미·중 관계의 하이라이트
언론	신화통신	- 미·중 관계가 쇠퇴를 멈추고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기세를 보이는 중요한 순간에 성사되었으며 미·중 양국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음.
	인민일보	- 중국은 인류의 미래와 운명은 세계 각국의 국민이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 왔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각

21) 「热点 | 中美经贸向好发展迎来新契机」, 『中国经济时报』(2023.11.20)

22) 「热点 | 中美经贸向好发展迎来新契机」, 『中国经济时报』(2023.11.20)

전문가		국 국민들의 입장과 바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미·중 관계를 옹호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에 유대와 소통 강화는 미·중 관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환구시보	- 앞으로의 여정이 순조로울지는 미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미·중 관계의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자 미국의 정치적 신뢰도를 크게 시험하는 것이라고 언급
	매일경제신문	-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이 올바른 관계의 길을 세울 수 있는지는 양국 국민의 안녕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발전과 인류의 미래에도 관련됨.
	차오쑤이성 (미국 텐버데)	- △군사 고위급 소통과 대화 메커니즘의 복원 △인문 교류 △사법 집행 △글로벌 거버넌스 등 분야의 협력에서 이론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힘.
	랴오정룽 (중국사회과학원)	- 미·중 고위급 왕래가 정점에 이르렀으며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에 큰 기대와 함께 경제무역 관계가 조정될지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
	우신보 (푸단대)	- 향후 미·중 관계의 목표 관리와 과정 관리를 추진하고, 게임 경계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 연구원)	-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방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
	가오펬이 (중국외교학원)	- 미국의 각계각층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교류에 열의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와 문화교류를 모두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
	저우미 (상무부연구원)	- 협력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
전문가	마잉잉 (중국사회과학원)	-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기에 소통 유지와 관심사 이해가 필요
	쑤리펑 (중국현대국제 관계연구원)	-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다시 ‘봄날(小阳春)’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해야 하고, 양국 간 소통 및 조율 강화가 필요
	장위안펑 (장쑤사회과학원)	-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 △디커플링 및 상계 조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개발 △첨단기술 무역 제한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

자료: 중국정부망 및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汪文斌：“通往旧金山”不能靠“自动驾驶”」. 2023. 『外交部发言人办公室』(11. 9).
- 「深度 | 中美元首巴厘岛会晤，释放哪些关键信息？」. 2022. 『上观新闻』(11. 14).
-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在巴厘岛举行会晤」. 2022. 『新华社』(11. 14).
-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举行中美元首会晤」. 2023. 『中国政府网』(11. 16).
- 「王毅谈中美元首旧金山会晤对中美关系的影响」. 2023. 『外交部』(11. 16).
- 「2023年11月16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 『外交部』(11. 16).
- 「谢锋大使向美国各界宣介中美元首旧金山会晤重大意义和重要成果」. 2023. 『中华人民共和国驻洛杉矶总领事馆』(11. 22).
- 「担负起沉甸甸的责任——中美元首旧金山会晤侧记」. 2023. 『新华网』(11. 17).
- 「人民网评：中美关系的故事是由人民书写的」. 2023. 『人民网』(11. 21).
- 「社评：世界期待“旧金山愿景”照进现实」. 2023. 『环球时报』(11. 17).
- 「热评 | 赓续中美友谊，推进中美关系 努力为促进世界和平和发展作出更大贡献」. 2023. 『每日经济新闻』(11. 17).
- 「国际观察：“中美关系的大门一旦打开，就不会再被关上”」. 2023. 『人民网』(11. 22).
- 「廖峥嵘：期待经贸为中美关系改善创造基础」. 2023. 『环球时报』(11. 28).
- 「吴心伯：界定中美博弈的边界，很难却很重要」. 2023. 『环球时报』(11. 21).
- 「焦点访谈 | 把舵中美关系 领航亚太合作」. 2023. 『央广网』(11. 20).
- 「热点 | 中美经贸向好发展迎来新契机」. 2023. 『中国经济时报』(11. 20).

2. 영문 참고자료

-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2023. 『White House』(10. 27).
-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White House』(11. 15).

자료 정리: 중국 칭화대학교 석사생 조동진
(cdj0306@naver.com)